

1. 돌무더기 이야기

- 열두 지파 대표의 돌을 두 군데에 세움

⇒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의 발 밑

⇒ 진을 친 뒤 길갈에 세움

- '돌을 세우는 것'의 의미

⇒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

⇒ 삶의 이정표가 됨

2. 요단강을 건너는 이벤트

(1) 요단강 가운데 세운 돌무더기

- 백성이 모두 건널 때까지

: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

- 백성이 건넌 뒤

: 제사장 발밑에 돌무더기를 세움

⇒ 요단강 이벤트를 마음에 새김

3. 기억의 샘 만들기

- 기억의 샘이란?

⇒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

⇒ 삶을 살아갈 힘과 믿음이 되어주는 '기억의 샘'

4. 우리의 길갈

- 길갈이란?

→ 삶의 모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

- 길갈의 역할

→ 우리의 삶을 ‘하나님의 은혜’의 흔적으로 채워가며

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